

고려장 설화의 재음미

조 유 향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서 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통계청(2011)은 2010년 인구총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가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2011). 산업사회로의 변모와 함께 전개된 노인인구의 증가현상으로 인하여 효와 경로사상이 약화되는 등의 노인과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학대(elder abuse)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려장(高麗葬)”이다.

본고는 2011년 8월 중국 운남성 추슝시 주최로 개최된 제3회 이족 메이저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이 글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34-70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번지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유향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는 yhcho@chodang.ac.kr이다.

근래에도 고려장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든 장인을 고려장한 사위’라는 신문기사(조선중앙일보, 1934)를 비롯하여 영화 ‘고려장’ (김기영, 1963), ‘고려장’ 또는 ‘신(新)고려장’이라는 소설(백용운, 1972; 전상국, 1995), ‘할머니 고려장 가시던 날’이라는 시(김동원, 1984), 그리고 ‘필리핀 고려장’이라는 TV프로그램(SBS, 2007)까지 다양하게 노인 학대의 불행한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한국어대사전(2000)에 의하면, 고려장은 고구려 때에 늙고 병든 사람을 광 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지냈다는 속전(俗傳)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사람이 늙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산 채로 산이나 들에 갖다 버렸다는 장제(葬制)를 말하는데, 고려장 설화란 장제가 있었다가 없어지게 된 내력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이수자, 1987).

또 고려장은 고대 사회에 사람이 노쇠하여 70세가 되면 산 속에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전설에서 온 민간설화인 기로전설(棄老傳說)에 해당되기도 한다 (김정학, 1962). 역시 고려장 설화에 따르면, 늙고 병든 노인들을 내다버리는 일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모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풍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필히 ‘고려장’이라고 칭하게 되었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준하, 2002). 그 이유가 분명하지 못한 탓에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려장 설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고려장 설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존재가 사실이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한, 2009; 김정학, 1962; 손진태, 1947, 1991; 이수자, 1987; 한구, 1998).

특히 한구(1998)는 전국적으로 널리 전해져온 66편의 고려장 설화를 분석하면서 설화들이 모두 윤리적 교훈이나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장 설화처럼 병들고 늙은 노인을 생활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기로풍습(棄老風習)은 인도를 근원지로 중국을 거쳐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이것도 역시 여러 나라에서 효행과 경로사상이 강조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근태, 1995; 김용의, 200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고령사회로 가는

고려장 설화의 재음미

현시점에서 고려장 설화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면서 그 설화가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고려장 설화

우리나라에는 고려장 설화가 크게 두 종류로 구전되고 있다. 편의상 하나는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을 묘사한 “문제해결 형” 설화로 노인을 버리는 풍습을 없애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에는 사람이 늙으면 산 채로 버리는 것이 법이었다. 어떤 효자가 살았는데, 그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늙어 고려장을 행해야 했다. 그러나 부모를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아들은 고려장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뒤 몰래 부모를 집안에 숨겨두고 모셨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를 내며 답을 맞춰보라는 요구를 해왔다. 임금님은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노라고 했다.

문제로는 “비슷하게 생긴 두 마리 말들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기,” “깎아놓은 나무의 위와 아래 부위를 구별하기,” “큰 코끼리의 무게 달기,” “두 마리 뱀의 암수를 구별하기,” “잠든 자를 이름 붙여 깨어난 자로 만들고, 깨어난 자를 이름 붙여 잠든 자로 만들기,” “한 움큼의 물이 큰 바다의 물보다 더 많은 이치를 알아내기,” “이 세상에 굶주림과 고뇌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기,” “나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받는 자가 있는지 알아내기,” “나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이 있는지 알아내기” 등이었으며, 그밖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문제들을 아무도 제대로 풀지 못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게 되었을 때 효자는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노부모는 답을 쉽게 찾았다. 효자는 나라에 답을 알려주어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으며, 임금이 포상을 하려고 하자 효자는 “국법을 어기고 몰래 모시고 있던 부모님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라고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을 어겨 고려장하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죄를 고하였다. 이에 임금님은 “고려장법을 폐지하라!”고 명하여 없어졌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지게 형” 설화로 연로한 부모를 지게에 저다 버리는 풍습이 잘못된 효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사람이 70세가 되면 산속에 내버려졌다. 그 시대의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마침 70세가 되었으므로 풍습대로 지계에 지고 산 속에 내다 버리려고 산속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서 지계와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 때 함께 따라왔던 그의 아들이 버려진 지계를 다시 가져가려고 등에 짊어졌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 지계를 가지고 가지 마라!”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어 70세가 되면, 이 지계로 아버지를 버릴 작정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감동하여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효도를 다하였다. 이로부터 노인을 버리는 악습이 사라졌다는 줄거리이다.

전술한 두 설화 중에서 첫째 이야기는 불전(佛典)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잡보장경(雜寶藏經) 기로국조(棄老國條)의 설화와 유사하며, 둘째 이야기는 중국 효자전(孝子傳)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와 비슷한 설화들은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범세계적으로 널리 존재했던 설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의 두 설화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설화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하는 “나뭇가지 꺾어두기 형” 설화이다. 그 이야기의 개요를 살펴보면, “노인은 60세가 되면 산에 버려진다.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계속 던진다. 아들이 돌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를 자신을 산에 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산에 버려두고, 산을 내려오면서 나뭇가지가 떨어진 길을 따라오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아들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생각과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어머니를 모시러 가게 되었고, 정성껏 모셨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화로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것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2008). 이는 노인을 더 승화시켜 신격화시킨 고려장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요는 “옛날 제주도에서는 노인이 70세가 되도록 살면 이 사람은 신선이 될 사람이라 했다. 그래서 70세가 되는 날, 그 아들이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음식을 차리고 어버이를 한라산으로 모셔 갔었다.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 이 음식을 차려 놓고 어버이를 앉혀 두고 오면 그날로 신선이 되어

고려장 설화의 재음미

올라간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고려장 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데, 이는 늙은 어머니를 깊은 산골에 버리는 봉건적인 비정의 시대상을 파헤친 작품이다 (김기영, 1960). 영화의 내용을 보면, “기아에 허덕이는 화전민들의 마을,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미신에 얽매어 사는 그 마을에는 어느덧 사람 나이 70세가 넘으면 산 채로 업어다버리는 폐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엄한 계율을 어기고 한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버리러갔다가 나중에 자신도 그렇게 업혀 버려질 것을 생각하고 계율을 어기고서 다시 업고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논 의

중국 위지(魏志)에는 부여나 고구려의 후장(厚葬) 풍속이 기록되었는데, 임금이나 귀족의 장사를 지낼 때 계생(繼生) 사상에 따라서 금은주옥의 장식품이나 기물의 부장(副葬)과 함께 많은 노비와 우마를 순장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사회에서 생산성이 없는 노쇠자가 천대받은 일과 관련하여 늙고 병든 이를 버리는 고려장 풍속이 존재했을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 병들어 죽은 자를 유기했다는 풍습의 기록은 있었지만, 노인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다. 이러한 풍습은 혈연이나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통구스족이나 몽골족, 또는 시베리아족 등 여러 종족들 사이에 존재했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김민한, 1999, 2009).

고려장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집안의 늙은이 또는 늙은 아버이를 내다버리는 장례풍습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무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었다는 해석이다. 후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인이 묘를 도굴한다는 내용의 ‘고려장 굴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토대로 무덤을 뜻하는 말로 일상용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8).

설화들은 고려장의 폐지라는 동일한 결말을 보여주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아들의 불효를 강조하면서 손자의 지혜가 고려장 폐지의 계기였다면, 다른 하나는 노부모의 지혜에 의한

국가적 문제 해결이 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설화는 지혜를 내는 주체는 다르지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적인 구조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속의 노인을 버리는 풍습에는 인간을 신체적인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반박하는 아들의 재치나 노인의 지혜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으며 (이효인, 2008), 노인이나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측면은 우리 문화권에서 효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들이 고려장 설화로 변형된 것도 효의 윤리를 강조하는 전승집단의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민한, 1999).

고려장 설화가 소설이나 동화 등에서 소재로 등장할 경우 독자들에게는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된다. 우선 2004년 11월 11일자 의 ‘한겨레신문(2004)’에 고려장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논거들을 정리되어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 문화권의 장례풍속이 언급된 가장 오랜 문헌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인데, 여기에는 살아 있는 사람을 버렸다가 매장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노모를 지계에 지고 버린 아비의 아들이 다시 아비가 늙으면 저다 버린다 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효자전(孝子傳) 원곡(原穀) 이야기가 원전이라는 점 그리고 사신이 문제를 내고 버려진 노모가 풀었다는 ‘어머니의 지혜’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인도의 잡보장경(雜寶藏經) 기로국(棄老國) 설화가 원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 문화권의 고려장 풍습 부재를 엿볼 수 있다. 박문관이 1919년 펴낸 ‘전설의 조선’에는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사 미와타마키(三輪環)가 채록한 고려장 설화와 비슷한 ‘불효식자’라는 내용이 있다. 192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동화집’에도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며, 곧이어 1926년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가 정리한 ‘조선동화집’에도 내용을 약간 달리하여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록되어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2004. 12. 21)기사에서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존재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풍속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고려장 설화의 재음미

야 한다고 논하였다. ‘고려장’이라는 용어는 이병도(1939)의 ‘국사대관’에 언급된 것이 최초이다. 물론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 The Hermit Nation)에는 “Ko-rai-chang”이라는 용어가 1882년 초판부터 직접 등장하는데,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늙은이를 버리는 풍습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리피스는 조선에 직접 와서 그러한 내용을 채록한 사실이 없으며, 그 대신 일본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썼기 때문에 고려장 존재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거들은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노인 학대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효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도록 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고려장 설화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설화는 다른 나라에서 전해져 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 설화는 설화일 뿐이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설화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향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고려장 설화의 내용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효도의 의미를 알도록 해주고 있으며, 생활 장면에서 노인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노인들의 높은 경륜을 존중하자는 경로사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에 있을 수 있는 학대나 무시 등의 노인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려장 설화는 다시 우리에게 교육적 가치로서 효 의식을 강화시키고 경로사상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근태 (1995). 설화 교재의 원리와 방법 I: 고려장 설화를 동화화한 ‘지혜로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1, 209-230.
- 김기영 (1963). *고려장*. (한국문화영화사 작 영화)
- 김동원 (1984). *할머니 고려장 가시던 날*. (시)
- 김민환 (1999). 한국사학: 고려장 설화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5, 103-145.
- 김민환 (2009). *한반도에 고려장은 없었다*. 서울: 세종출판사.

조유향

- 김용의 (2008). 한일 기로설화의 비교. *일본연구*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간), 25, 311-332.
- 김정학 (1962). 고려장의 전설에 대하여. *사상계*, 10월호, pp. 204-209.
- 대한매일신보 (1908). *고려장 굴충*. (1908년 11월 11일자 기사)
- 백용운 (1972). *고려장*. (월간문학 간행 소설)
- 손진태 (1947).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손진태 (1991).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오마이뉴스 (2004). *고려장 개념, 일제가 처음 퍼뜨렸다?* (2004년 12월 21일자, 이순우)
- 이수자 (1987). 고려장 설화의 형성과 의미. *국어국문학*, 98, 131-162.
- 이효인 (2008). 고려장과 나라야마 부시코(1958, 1982)에 나타난 공동체 및 효에 대한 비교분석. *영화연구*, 37, 273-299.
- 전상국 (1995). *고려장*. (한국소설문학대계 2). 서울: 동아출판사.
- 조선일보 (2011). *노인인구증가*. (2011년 5월 31일자, p. 6)
- 조선중앙일보 (1934). *병든 장인을 고려장한 사위*. (1934년 6월 9일자)
- 조준하 (2002). 유가사상과 우리나라 장례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15, 251-278.
- 통계청 (2011). *인구통계조사*.
- 한겨레신문 (2004). *고려장은 없었다*. (2004년 11월 11일자, 김수문)
- 한 구 (1998). *고려장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어대사전 (2000). *고려장*. 서울: 현문사.
- SBS (2007). *긴급출동 SOS 24: 필리핀 고려장*. (2007년 10월 9일자 방송프로그램)

(논문접수일: 2011년 10월 6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11월 16일)

(논문게재승인일: 2011년 11월 25일)